

수소경제 국제회의 12-13일 서울 개최

수소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각국 산·관·학 대표들의 기구인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십(IPHE) 실행연락위원회> 8차 회의가 6월 12-13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다.

2003년 미국의 제안으로 결성된 IPHE는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체계 구현의 효과적 실행 방안 모색을 목표로 정보교류와 다자간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는 국가간 정책협력체이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독일, 중국 등 17개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8차 실행위원회에는 독일의 한스 요아킴 네프 의장을 비롯한 50여명의 각국 대표들이 모여 IPHE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007년 신규 추진 대상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비용과 도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6/12>